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8, Vol. 24, No. 4, 593~614.
<http://dx.doi.org/10.20406/kjcs.2018.11.24.4.593>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 은 하[†]

아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을 의미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이를 위해 선 행연구와 기존 척도를 고찰하고 설문지와 개인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17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후 성인 여성 1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요인, 14문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른 성인 여성 표본 219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2요인과 14문항이 적합함을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EGM의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기존의 성차별척도, 우울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EGM의 학문적 의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마이크로어그레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척도개발, 타당화

* 이 논문은 2017년 대학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NRF-2017S1A5A8020095).

† 교신저자 : 김은하,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율곡관 508호
E-mail : eunkim@ajou.ac.kr

한국 여성의 대학진학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김수한, 신동은, 2014). 유엔이 정한 여성차별협약 1조에 따르면, 성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혹은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제한’을 의미한다. 성차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예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젠더갭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118위였고,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지수 등에서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OEDO, 2017). 또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가 한국 여성 1,2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3%가 한국은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국가’라고 응답하였고, 가족, 학교,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성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무시를 당하거나 여성 집단을 하나로 묶어 비난하거나 외모에 대한 지적과 같은 성차별을 흔히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취업 여성의 고용, 직무분리, 업무평가, 임금에서의 불이익, 성희롱, 결혼, 임신 혹은 출산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 역할에 대한 압력 등의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아직까지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국내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다

수 진행되었다. 이를 연구에 따르면, 성차별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 중 하나로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ari & Lankarani, 2017; Fischer & Holz, 2010). 구체적으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성차별 경험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예은, 2017; 오현규 등, 2016; Klonoff & Landrine, 1995). 또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한 여성은 자존감이 낮고 분노와 화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 등, 2017; 김은하, 백혜영, 2018).

지난 몇십년동안 심리학, 사회학, 여성학, 행정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기존의 대부분 연구들은 비공식적 평가(informal assessment) 방법, 즉 성차별적 상황(예. 성희롱, 업무평가, 임금)을 제시하고 참여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묻는 방법을 통해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였다(Swim, Hayers, Cohen, & Ferguson, 2001). 이러한 방법은 간편성과 실용성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검사에 비해 신뢰도나 타당도가 떨어지고 연구간에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도구들을 개발하였는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한 여성차별사건 척도 (Schedule of Sexist Events; SSE)이다. 또한 여교수를 대상으로 한 여성의 근무환경 척도-학교 현장(Working Environment for Women in Academic Settings; Riger, Strokes, Raja, & Sullivan, 1997)과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의 근무환경 척도-기업 현장(Working Environment for Women in Corporate Settings; Strokes, Ringers & Sullivan, 1995) 등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간접적이고 미묘한(subtle) 형태의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는 여성을 직접적으로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 즉, 명백한 구식의 성차별(old fashioned sexism)이 줄어든 대신 은밀하고 모호한 방식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새로운’ 혹은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Dipboye & Colella, 2005; Nadal, 2009). 현대적 성차별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의도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구식의 성차별과 유사하게 피해자 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이 종식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Banks, Kohn-Wood, & Spencer, 2006; Campbell, Schellenberg, & Senn, 1997). 이러한 맥락에서 구식의 성차별과 더불어 현대적 성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 예를 들어, Swim, Aikin, Hall과 Hunter(1995)가 개발한 현대적 성차별 척도(Modern Sexism Scale), Tougas, Brown, Beaton과 Joly(1995)가 개발한 새로운 성차별(Neosexism Scale), Becker와 Swim(2011)이 개발한 일상 속 성차별(Everyday Sexism Checklist), Glick와 Fiske(1996)가 개발한 양가적 성차별 척도(Ambivalent Sexism Inventory)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대부분 개인의 성차별 경험이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성차별적 태도(예. “더 이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여성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남자가 필요하다”)를 측정한다

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현대적 성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고 관련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들도 개발되고 있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 즉,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 악의도 없지만 당하는 피해자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포함한 차별을 의미한다(Sue, Capodilupo, Torino, Bucceri, Holder, Nadal, & Esquilin, 2007).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예로는 흑인에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난 흑인 친구가 몇 명 있어. 그래서 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놀래면서) 너 되게 똑똑하다”라고 말하거나 여성 동성연애자에게 “너 레지비언 치고 되게 이쁘다”, “너 생각보다 여성스럽다”와 같은 발언이 있다. 그 동안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주로 인종차별에 적용되어 논의되어 왔지만 근래에는 성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도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다(Gartner & Sterzing, 2016; Nadal, Davidoff, Davis, Wong, Marshall, & McKenzie, 2015; Timmins, Rimes, & Rahman, 2017).

Sue 등(2007)에 따르면, 마이크로어그레션은 크게 세 가지 차별을 포함하는데, 먼저, microassault는 미묘한 공격으로, 명백하고 가시적인 구식의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microinsult은 미묘한 모욕으로, 소수자에 대한 무례함이나 비하 등이 내포된 발언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microinvalidation은 미묘한 무효화로, 소수자의 감정, 생각 혹은 경험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수자를 배제시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뜻한다.

여성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 즉 젠더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의 경우, 소수자는 여성을 지칭한다.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세 유형 중, 미묘한 모욕이나 미묘한 무효화는 차별을 행하는 행위자나 당하는 피해자 모두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교묘한 차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Gonzales, Davidoff, Nadal, & Yanos, 2015; Minikel-Lacocque, 2013). 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묘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 불안,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타인에 의해 ‘사소한’ 경험(예. “이게 무슨 차별이야?”, “그냥 농담이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혼란, 자기의 심,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adal & Haynes, 2012).

아직까지 인종에 대한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비해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Capodilupo, Nadal, Corman, Hamit, Lyons와 Weinberg(2010) 그리고 Nadal (2010)은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주제로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함(second-class citizenship),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use of sexist language),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assumption of inferiority), 제한적 성역할(restrictive gender roles),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인함(denial of individual sexism), 사회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함(denial of the reality of sexism), 여성의 불가시성(invisibility), 성적 농담(sexist humor/jokes), 사회적 차원의 불평등(environmental invalidations, 예. 남·녀 임금차, 유리천장, 여성의 미모를 강조하는 언론)을 제

안하였다. 또한 Capodilupo 등(2010)은 집단초점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성적 대상화,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함, 여성의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 제한적 성역할, 성차별적 언어의 사용, 환경적 마이크로어그레션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은 성적 대상화와 여성의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GRMS-BW; Lewis & Neville, 2015), Microaggression Against Women Scale in Therapy(MAWST; Owen, Tao, & Rodolfa, 2010), Gendered Microaggressions Scale(GMS; Capodilupo & Tornio, 2012; Judson, 2014에서 재인용)가 개발되었다. GRMS-BW는 흑인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외모에 대한 가정과 성적 대상화(assumption of beauty and sexual objectification), 침묵하고 배제된(silenced and marginalized), 강한 흑인여성 고정관념(strong Black woman stereotype), 화난 흑인 여성 고정관념(angry Black woman stereotype) 등 4개의 하위요인,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MAWST는 내담자들이 상담관계에서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로 단일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의 상담자는 내 몸을 평가하듯 쳐다보았다”, “나의 상담자는 여성의 능력, 자질, 선호에 대해 편견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반해, GMS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 아직 학술지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Judson(2014)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하였고, 결과적으로 7개의 하위요인, 3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전통적 가사의무의 기대(traditional household duty expectation), 대상화(objectification), 자기 주장에 대해 혹독하게 여김(harshly labeled assertiveness), 외모에 대한 압박(appearance pressure),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marriage and child bearing expectation), 성차별의 부정(denial of sexism), 가부장적 직업기대(patriarchal work expectation)가 있다(김예은, 2017).

이러한 척도들은 신뢰도나 타당도면에서 검증되었고, 성차별 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심리적 문제, 신체적 문제, 직업 관련 적응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Bowleg, Neilands, & Choi, 2008; Burke & Mikkelsen, 2005; Sue, 2010). 하지만, 이 척도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먼저, 현대적 성차별이나 양가적 성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들의 경우,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보다는 개인의 성차별적 태도나 신념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떠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이나 서양 국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토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한국여성의 성차별을 이해하고 측정하는데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문화적 맥락과 역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Grant, 2012), 기존의 해외 척도들을 번역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한국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김은하 등(2017)이 마이크로 어그레션 개념을 도입하여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나 이 척도는 취업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경험하는 성차

별적 상황만을 포함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척도의 또 다른 한계점은, 대인관계, 특히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경험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환경적 성차별, 가령, 언론이나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성차별 대한 여성들의 경험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Swami, Coles, Wyrozumska, Wilson, Salem, & Furnham, 2010). 대중매체와 관련한 성차별도 여성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피해 여성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없어 무기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Fox, Cruz, & Lee, 2015; Strain, Saucier, & Martens, 2015)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을 예방 및 균절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기존의 노골적이고 명백한 형태의 성차별, 즉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지만 미묘하고 모호한 방식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백한 형태의 성차별부터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을 포괄하는 ‘젠더 마이크로어 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척도, “일상 속 성차별 경

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EGM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미묘한 성차별을 포함한 성차별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차별 예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EGM은 남성이 행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생하는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EGM은 내면화된 성차별(internalized sexism), 여성이 자신이나 다른 여성은 차별하는 행위에 대한 경험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Szymanksi, Gupta, Carr & Stewart, 2009), 그 이유는 내면화된 성차별과 외부적 성차별(남성 혹은 대중매체 의해 발생하는 성차별)이 성격, 유형 그리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척도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Bearman, Korobov, & Thorne, 2009). 달리 말하면, 외집단과 내집단에 의한 성차별은 구분되어 측정 및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척도에서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EGM의 예비문항을 제작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EGM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우울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준거 요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여러 연구를 통해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우울에 취약하고 낮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이다(Sue, 2010; Pascoe & Smart Richman, 2009). EGM은 한국 여성들이 어떠한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어그레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기존 문헌과 젠더마이크로어그레션의 구성개념 그리고 설문지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예비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법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문항 개발

연구 대상

EGM의 문항 개발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 42명(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39.4세였으며, 학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 7명(16.7%),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성 26명(61.9%),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여성 9명(24%)이었다. 여성들의 직업이나 근무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성차별이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양한 직군의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공무원 3명(7.1%), 중소기업 회사원 10명(23.8%), 대기업 회사원 5명(11.9%), 교사 혹은 교수 4명(9.5%), 변호사 혹은 의사 2명(4.8%),

상담사 1명(2.4%), 약사 1명(2.4%), 간호사 1명(2.4%), 언론인 2명(4.8%), 전업주부 6명(14.3%), 대학(원)생 5명(11.9%), 취업준비생 2명(4.8%)이었다. 또한 7명의 여성과 개별인터뷰를 실시 하였는데, 이 중 5명은 40대, 2명은 50대 여성 이었고, 1명을 제외한 6명은 기혼이었으며, 3명은 전업주부, 2명은 인문계 교수, 2명은 회사원이었다.

문항개발 절차 및 결과

문항 개발은 김민선과 서영석(2016)이 제시한 절차에 따라 초점질문 개발(1단계),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인터뷰 실시(2단계), 핵심진술문 도출(3단계), 예비문항 선정(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통해 젠더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정의와 주제를 살펴본 후 초점질문을 제작하였고, 관련 주제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으로 하여금 질문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질문의 적절성은 두 가지 영역(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성차별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 학력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세 질문 중 첫 번째 초점질문이 평점 4.5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정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아래 질문을 초점 질문으로 결정하였다. “과거에 비해 의도적으로 행하거나 누가 봐도 차별로 여겨지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차별은 줄었지만, 여성에 대한 ‘미묘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묘한 차별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지만 일상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성 비하적 행동이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 혹은 지인

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단계에서는 이러한 초점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만 19세 이상 42명의 여성에게 실시하였다.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학, 사회복지, 법조계, 의학계, 정부, 언론 등의 직군에 종사중이거나 전업주부 혹은 대학(원)생인 연구자의 지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참여자들을 소개 받아 42명의 참여자에게 직접 혹은 전자메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또한 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핵심 질문은 설문지 질문과 동일하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는 개인별로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이 외에도 구글, 네이버, 다음 등의 대규모 포털 사이트에서 ‘성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 뉴스, 블로그,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고 성차별 사례를 수집하였다.

3단계에서는 설문지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성차별 사례의 내용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성차별에 대한 21개의 진술문을 만들었다. 또한 다문화상담과 차별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으로부터 21개의 진술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성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의미가 유사하거나 애매모호한 6개의 진술문을 삭제하였다. “남자친구나 남편으로부터 여자가 늦게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남자가 뜬금없이 내 화장에 대해 칭찬한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니가 웃으면서 밀하면 웃분(예. 선생님, 직장

상사)들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1저자가 선행 연구, 특히 기존의 성차별 경험 척도인 MAWST의 두 하위요인(대상화, 외모에 대한 압박)을 반영하여 미묘한 성차별로 볼 수 있는 진술문(예.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 이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을 추가하여 최종 17개의 진술문(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기존의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Nadal, 2011)를 참고하여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5=매우 자주 경험했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 대상

만 19세 이상 여성 1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여성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와 수도권에 소재한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문화공간 홈페이지 등에 연구 목적과 방법 및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 설문을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설문에 응답하기 전 연구 참여자의 비밀명, 연구 참여로 인한 이익과 위험, 자발적인 참여 결정과 불이익이 없음, 정보 보호 등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5분 정도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3.96세($SD=7.89$)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101명(56.1%), 기혼 72명(40.0%), 이혼 혹은 별거는 7명(3.9%)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28명(15.6%),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135명(75.0%), 석사 이상 17명(9.4%)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114명(57.8%), 전문직 12명(6.7%), 서비스직 및 영업직 9명(5%), 대학(원)생 19명(10.6%), 전업 주부 36명(20%)이었다.

자료 분석

예비문항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본 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920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 = 1715.187(p < .001)$ 로 나타나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주축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도표, 평행분석 결과 및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스크리 도표는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다가 세 번째 요인 이후부터 평평한 기울기를 보였고, 평행분석 결과 역시 2개 요인을 지지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수를 2요인으로 고정하고 주축 요인 분석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 그리고 교차부하량이 .32이상인 문항인 3문항을 삭제하였다(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삭제된 문항은 "남

자로부터 ‘여자는 운전을 못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외모 관리 안 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

이 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애교를 부려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정된 2요인, 14문항의 누적 설명

표 1. EGM 최종문항

문항	요인 1	요인 2	h^2	총점-문항 상관
6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859	-.054	.685	.769
7 성희롱을 당하고 다른 남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852	-.073	.656	.753
8 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피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844	-.070	.644	.750
4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813	-.017	.644	.759
11 남자로부터 ‘여자가 너무 따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97	.130	.614	.783
12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95	.098	.576	.757
10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49	.180	.596	.780
1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621	-.048	.351	.587
2 남자로부터 ‘여자는 결혼 잘 하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459	.164	.430	.621
15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052	.920	.790	.731
16 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 쓰니 훨씬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013	.833	.707	.724
13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짚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046	.820	.629	.673
14 남자로부터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25	.710	.629	.742
17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50	.543	.650	.806
eigenvalue	7.162	1.338		
설명변량(%)	51.159	9.554		

변량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60.173이였고, 모든 문항은 적정한 수준(.430~.790)의 communality값과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해당 구성개념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총 9문항으로,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역차별을 반영하는 문항(예. “남자로부터 ‘이제 한국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요새는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과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압박(예. “남자로부터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수동적인 여성상을 기대하는 문항(예. “남자로부터 ‘여자가 너무 따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1을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7.162로 전체 변량의 51.159%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 2는, 총 5문항으로, 여성의 미모를 중요시하는 발언(예. “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 쓰니 훨씬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반영하는 문항(“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젊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이 포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 2를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

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고유치는 1.338로 전체 변량의 9.554%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 결과, 총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3, 요인 1은 .917, 요인 2는 .906으로 나타났고,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는 문항은 없었다. 총점-문항 간 상관은 .587에서 .806으로 나타나 .40이상의 기준(Ware, Harris, Gandek, Rogers, Reese & Boston, 1997)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다른 여성의 자료를 타당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절차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동일하게 다양한 직업군의 만 19세 이상 여성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의뢰한 온라인 업체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자발적으로 연구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성들의 설문응답을 얻어 연구자에게 제공하였고 연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총 15분정 도였으며, 참여자들은 3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4.80세($SD=8.32$)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 109명(49.8%), 기혼 105명(47.9%), 이혼 혹은 별거는 5명(2.3%)이었다. 또한,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2명(14.6%),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졸업 153명(69.9%), 석사 이상 34명(15.5%)이었고, 직업은 일반/사무관리직 134명(61.2%), 자영업 2명(0.9%), 전문직 13명(5.9%), 서비스직 및 영업직 18명(8.2%), 대학(원)생 6명(2.7%), 전업 주부 46명(21%)이었다.

측정 도구

성차별사건 척도

본 연구에서는 EGM의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Klonoff와 Landrine(1995)이 개발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2017)이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6점 척도(1=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6=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내 삶의 70%이상의 시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금까지 살면서’ 성차별을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Klonoff 등(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2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있다.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EGM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타당화한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우울 정서를 측정하는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없다, 5=아주 심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43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허무한 느낌이 듈다”,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가 있다.

삶의 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EGM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 (1985)이 개발하고 한정원(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각 문항은 7점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2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0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예로는 “대체로 내 인생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가 있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먼저, 2요인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적합도 지수는 CFI=.944, NFI=.920, TLI=.933, RMSEA=.085로 나타났다. 홍세희(2000)에 의하면, 표본 크기에 덜 영향을 받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가 .90 이상,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

적합도로 해석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CFI, TLI는 .90이상이고, RMSEA도 .08에 가까워 EGM의 2요인 구조는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측정 변수인 14문항이 2개의 요인을 각각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은 .66 ~.98로 나타났고,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 관계는 .613으로 높은 상관 계수값이 확인되었다.

타당도 분석

EGM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비교

표 2. 2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NFI	TLI	RMSEA
233.075	76	.944	.920	.933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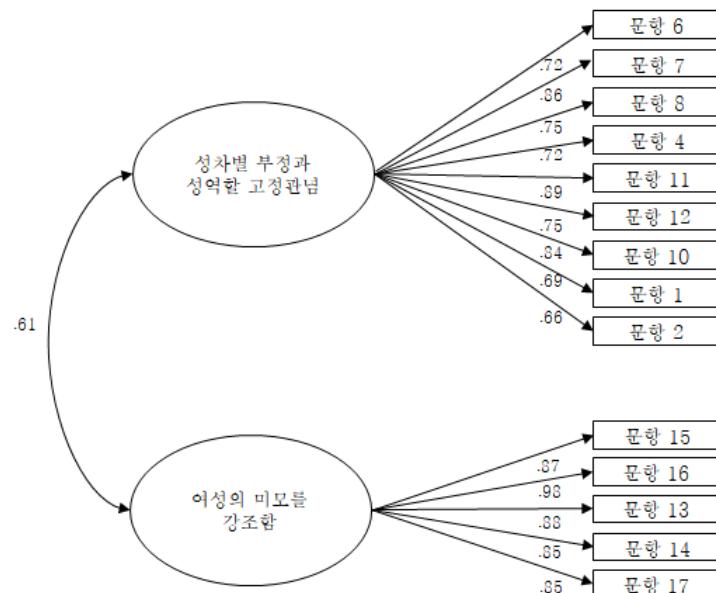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3. 수렴 및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

	1	2	3	4
1.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GM)	-	.617 **	.248 **	-.311 **
2. 성차별사건 척도(SSE)		-	.406 **	-.292 **
3. 우울 척도			-	-.259 **
4. 삶의 만족도 척도				-
<i>M</i>	2.722	2.925	2.347	4.189
<i>SD</i>	.879	1.106	.891	1.218

** $p < .01$. *** $p < .001$.

의 준거로서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기존의 측정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차별사건 척도(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SSE)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EGM은 SSE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준거 관련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 척도와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EGM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GM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SSE가 EGM에 비해 우울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EGM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을 측정하는 반면에 SSE는 다양한 환경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포괄적인 성차별을 측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EGM과 SSE는 삶의 만족도와 비슷한 상관을 보여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 또한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종합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성차별을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측정 도구인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을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특히 기존의 성차별 척도들이 명백하고 노골적인 형태의 성차별 경험만을 측정한 것에 반해 EGM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명백한 형태의 성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 경험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된 시점에서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키고 폭넓게 측정하는 것은 성차별의 실태를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개의 세부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연구 1에서는 실제 한국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떠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 설문지와 개별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도출된 진술문과 젠더 마이크로어그

례션 문헌을 바탕으로 EGM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17개 문항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확인하였고, 연구 2에서는 다른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 1을 통해 나타난 2요인, 14문항을 가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 우울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EGM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 활용 방법,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GM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크리도표, 평행분석, 해석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2요인의 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이하인 문항과 교차 부하량이 .32이상인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4 개문항이 선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요인 구조를 검증하기 위해 2개 하위요인 1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EGM의 요인과 문항들을 살펴보면, 1요인은 성차별의 존재를 부인함, 자기주장을 하지 말고 소극적임을 기대함, 전통적 가사 의무에 대한 기대,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 등과 관련한 9문항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성 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은 성적 대상화, 외모를 중시하는 개인의 발언이나 언론의 메시지 등과 관련한 5 문항들로 구성되어 “여성의 미모를 강조함”이라 명명하였다.

EGM의 문항들은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EGM은 Capodilupo와 Tornio(2012)가 개발하고 Judson(2012)이 타당화한 Gendered Microaggressions Scale(GMS)의 7가지 하위 요인 중 가부장적 직업 기대를 제외한 6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요인 1(“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GMS와 유사하게, 전통적 가사 의무에 대한 기대(“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 피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자기주장에 대해 혹독하게 여김(“남자로부터 ‘여자가 너무 따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남자로부터 ‘여자는 시집 잘 가는 게 최고야’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제대로 자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성차별의 부정(“남자로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또한 요인 2(“여성의 미모를 강조함”)는 GSM의 성적대상화와 외모에 대한 압박 요인과 비슷한 문항(“남자로부터 ‘화장이나 머리에 신경쓰니 훨씬 보기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바람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들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Capodilupo 등(200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함, 여성의 불가시성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을 측정하는 문항들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적 상황이 해외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 특히 미국(여성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미국에서 실시되었음)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나 EGM에 포함된 문항이 두 개 있었는데, “여자는 ‘날씬’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장하는 TV광고를 접한 적이 있다”,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짚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가 그러한 문항이었다. 이 두 문항은 한국 사회 환경과 인식의 특징이 잘 묻어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다양한 신체적 사이즈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날씬한 몸매가 여성의 능력과 자원을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예. 바비 인형)의 신체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고 ‘깡마른’ 모델을 무대에 서지 못하게 하는 법(“키 대비 체중 기준”)을 통과시켰으며 체중 감소가 아닌 건강한 신체 관리를 강조하는 TV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광고들이 날씬한 몸매 유지를 여성의 사회적 능력으로 포장하고 있다(이병혜, 2011), 또한, “지적이고 나이가 지긋한 남자 앵커와 짚고 미모가 뛰어난 여자 앵커가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도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대중매체와 관련된 성차별로, 다른 연구에서도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성차별적 요소들이 많다고 보고하였다(최은섭, 이상경, 2009). 특히 최근 실시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TV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여성의 정체성 무시/남성 의존 성향 강조, 외모차별,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신문, 2018). 여

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대중매체에 노출될수록,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신체이미지, 이상섭식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은하, 이신영, 2016; 윤태일, 2010),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GM은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세 가지 차원인 미묘한 공격(microassault), 미묘한 모욕(microinsult), 미묘한 무효화(microvalidation)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묘한 공격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피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미묘한 모욕의 예로는 “남자로부터 ‘똑똑한 여자보다는 말 잘 듣는 여자가 낫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미묘한 무효화의 예로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이 내 요구나 불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EGM는 일상 속에서의 성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EGM의 대부분 문항은 미묘한 모욕이나 미묘한 무효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명백하고 노골적인 구식의 성차별과 더불어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이러한 넓은 범위의 성차별을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묘한 모욕과 미묘한 무효화가 구식의 성차별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Sue, Bucceri, Lin, Nadal, & Torino, 2007),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예방 및 대안 방안에 대한 관심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EGM의 14문항은 여러 유형의 성차별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2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성차별

경험 척도(예. 김은하 등, 2017)나 다른 형태의 차별(예. 인종차별, 성소수자) 척도(예. Woodford, Chonody, Kulick, Brennan, & Renn, 2015)가 단일 혹은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반면에 다른 마이크로어그레션 척도인 Racial Microaggression Scale Scale(RMAS)이나 Gendered Microaggressions Scale(GMS)가 6요인 혹은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간의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여성의 외모 중시, 성적 대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제외한 다른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또한 다른 유형의 성차별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인 1(“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요인 2(“여성의 미모를 강조함”)간의 상관이 높고 각 문항들간의 상관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즉, 한 유형의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이 다른 유형의 성차별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요인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2 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EGM의 수렴 및 준거 관련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성차별사건 척도(SSE), 우울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EGM의 총점은 SSE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GM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EGM의 총점과 우울 척도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삶의 만족도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나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이 낮은 자존감, 낮은 심리

적 안녕감, 높은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Nadal et al., 2015)를 재확인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겪는 미묘한 성차별이 실제로 높은 우울과 낮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GM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에 대한 국내 연구를 촉진시키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차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직장 내에서 취업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되었으나 결혼 여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한 미묘한 성차별 척도를 개발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에 대한 국내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해외에서 자주 언급되어 온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주제와 더불어 대중매체와 관련한 미묘한 성차별 경험을 포함시킨 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개인적, 대인관계적 수준을 넘어 환경적으로, 특히 미디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김미정, 2009)와 그 맥을 같이 하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를 통해 발생하는 수 있는 성차별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특히 여성의 외모와 관련하여 미디어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는데 활용될 수 있는 연구 자원이 될 것이다.

EGM의 활용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EGM를 활용하여 수집한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자료는 미묘한 성차별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관련 정책, 프로그램,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GM은 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상담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 내담자들이 성차별 경험에 대해 개방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Owen, Tao, & Radolfa, 2010), EGM를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성차별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EGM는 성차별예방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기관에서 성차별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같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어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본 척도의 문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로 하여금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하도록 도와준다면 미묘한 차별이 줄어들고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잘못된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참여자 모집 시 연령대와 지역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표집하려 하였으나,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국내 모든 여성을 대표할 수 없으며 온라인 설문 기관에 패널로 등록되어 있는 비교적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적은 수의 젊은 여성층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 직업, 지역 등에서 보다 더 다양한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 타당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EGM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

반화가능타당도, 변별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등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EGM은 일상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미묘한 차별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이 EGM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백하고 노골적인 성차별 경험에 대한 문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마이크로어그레션의 세 가지 차원인 미묘한 공격, 미묘한 모욕, 미묘한 무효화를 균형있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EGM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성차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을 도입하여 성차별의 정의를 확대시키고 미묘한 성차별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의의를 꼽을 수 있다. EGM이 실제 여성의 상담과 성차별예방 교육에 활용되면서 그 타당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미묘한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된다면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민감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성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GM는 여성의 하위집단(예. 전업주부, 미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성차별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예.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성수수자)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을 촉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푸름 (2018). “TV 예능·오락 프로그램 성차별 여전”. *여성신문*. 2018.4.19
- 김민선, 서영석 (2016). 고학력 기혼 여성들의 진로지속 동기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63-88.
- 김수한, 신동은 (2014). 기업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경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학 논문집*, 12, 149-167.
- 김예은 (2017).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 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643-667.
- 김은하, 백혜영 (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173-193.
- 김은하, 이신영 (2016). 여자대학(원)생의 자아 분화와 이상섭식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181-204.
- 오현규, 김화연, 박성민 (2016). 한국여성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8(2), 307-328.
- 윤태일 (2010). 청소년 소비자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매체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복합적 효과. *광고연구*, 56, 56-83.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한정원 (1997). 자기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ssari, S., & Lankarani, M. M. (2017).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Gender differences among Arab Americans. *Frontiers in Psychiatry*. Online publication.
- Banks, K. H., Kohn-Wood, L. P., & Spencer, M. (2006). An examination of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of everyday discrimination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6), 555-570.
- Bearman, S., Koroboc, N., & Thorne, A. (2009). The fabric of internalized sexism. *Journal of Integrated Social Sciences*, 1, 10-47.
- Becker, J. C., & Swim, J. K. (2011). Seeing the unseen: Attention to daily encounters with sexism as way to reduce sexist belief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5(2), 227-242.
- Bowleg, L., Neilands, T. B., Choi, K-H. (2008). Evaluat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modified Schedule of Sexist Events: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research on women's behaviors. *Women & Health*, 47(2), 19-40.
- Burke, R. J., & Mikkelsen, A. (2005). Gender differences in policing: Signs of progress? *Employee Relations*, 27(4), 425-436.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M., & Senn, C. 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89-102.
- Capodilupo, C. M., Nadal, K. L., Corman, I. Hamit, S., Lyons, O. B., & Weinberg, A. (2010). The manifestations of gender microaggressions. In D. W. Sue (Ed.),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s, dynamics, and impacts* (pp. 193-216). Hoboken, NJ: Wiley.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pboye, R. L., & Colella, A. (2005). The dilemmas of workplace discrimination. In R. Dipboye & A. Colella (Eds). *The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bases of discrimination at work* (pp. 407-443). Larence Erlbaum Associates.
- Fox, J., Cruz, C., & Lee, J. Y. (2015). Perpetuating online sexism offline: Anonymity, interactivity, and the effects of sexist hashtags on social med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2, 436-442.
- Gartner, R. E., & Sterzing, P. R. (2016). Gender microaggressions as a gateway to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youth sexual violence. *Affilia: Journal of Women and Social Work*, 31(4), 491-503.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on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onzales, L., Davidoff, K. C., Nadal, K. L., & Yanos, P. T. (2015). Microaggressions experienced by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 exploratory study.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8(3), 234-241.
- Grant, J. M. (2012). *Sociocultural predictors of perceived sexism in urban college students*. CUNY Academic Works. Retrieved from http://academicworks.cuny.edu/cc_etds_theses/129.
-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 Tatham, R.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Pears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4), 439-470.
- Lewis, J. A., & Neville, H. A. (2015).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ndered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for Black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289-302.
- Minikel-Lacocque, J. (2013). Racism, college, and the power of words: Racial microaggressions reconsidered.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50(3), 432-465.
- Nadal, K. L. (2009). Preventing racial, ethnic, gender, sexual minority, disability and religious microaggressions.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positive mental health. *Prevention in Counseling Psychology: Theory, Research, Practice, & Training*, 2, 22-27.
- Nadal, K. L. (2010). Gender microaggressions:

-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M. A. Paludi (Ed). *Feminism and women's rights worldview* (pp. 155-175). Santa Barbara, CA: Praeger.
- Nadal, K. L. (2011). The racial and ethnic microaggression scale (REMS):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4), 470-480.
- Nadal, K. L., Davidoff, K. C., Davis, L. S., Wong, Y., Marshall, D., & McKenzie, V. (2015). A qualitative approach to intersectional microaggressions: Understanding influences of race, ethnicity, gender, sexuality, and religion. *Qualitative Psychology*, 2(2), 147-163.
- Nadal, K. L., & Haynes, K. (2012). The effects of sexism, gender microaggressions,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on women'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In P. K. Lundberg-Love, K. L. Nadal & M. A. Paludi (Eds.), *Women and mental disorders* (pp. 87-101). Santa Barbara, CA: Praeger.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Gender wage gap (indicator)*.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iger, S., Stokes, J., Raja, S., & Sullivan, M. (1997). Measuring perceptions of the work environment for female faculty.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1(1), 63-78.
- Strain, M. D., Saucier, D., & Martens, S. A. (2015). Sexist humor in facebook profiles: Perceptions of humor targeting women and men. *Humor*, 28, 119-141.
- Strokes, J., Riger, S., & Sullivan, M. (1995). Measuring perceptions of the working environment in corporate setting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533-549.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Hoboken, NJ: Wiley & Son, Inc.
- Sue, D. W., Bucceri, J., Lin, A. I., Nadal, K. L., & Torino, G. C. (2007). Racial microaggressions and the Asian American experience.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3(1), 72-81.
- Sue, D. W., Capodilupo, C. M., Torino, G. C., Bucceri, J. M., Holder, A. M. B., Nadal, K. P., & Esquilin, M. (2007). Racial microaggression in everyday life: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62(4), 271-286.
- Swami, V., Coles, R., Wyrozumska, K., Wilson, E., Salem, N., & Furnham, A. (2010). Oppressive beliefs at play: Associations among beauty ideals and practic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xism, objectification of others, and media exposu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 365-379.
- Swim, J., Aikin, K., Hall, W., & Hunter, A. (1995). Sexism and Racism Old-Fashioned and Modern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99-214.
- Swim, J. K., Hayers, L. L., Cohen, L. L., &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3.
- Szymanski, D. M., Gupta, A., Carr, E. R., & Stewart, D. (2009). Internalized misogyny as a moderator of the link between sexist events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Sex Roles*, 61(1-2), 101-109.
- Timmins, L., Rimes, K. A., & Rahman, Q. (2017). Minority stress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ransgender individual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3), 328-340.
- Tougas, F., Brown, R., & Joly, A. M. B. (1995). Neosexism: Plus Ca Change, Plus Cest Parei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8), 842-849.
- Ware, J. E., Harris, W. J., Gandek, B., Rogers, B. W., Reese, P. R., Boston, M. A. (1997). *MAP-R for Windows: Multitrait multi-item analysis program-Revised users' guide*. Boston, MA: Health Assessment Lab.
- Woodford, M. R., Chonody, J. M., Kulick, A., Brennan, D., & Renn, K. (2015). The LGBQ microaggression on campus scale: A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Journal of Homosexuality*, 62(12), 1660-1687.

논문 투고일 : 2018. 08. 01

1차 심사일 : 2018. 08. 06

게재 확정일 : 2018. 10. 2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unha Kim

Ajou University

By applying the concept of microaggression (subtle and indirect form of discrimina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we developed 17 pilot items. Next, after expert content validation, we administered online survey to 180 adult women and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 revealed 2 factors, 14 items, and this structure was reconfirm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nother sample of 219 adult women.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were also examined via correlations with measures of sexis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We discussed implications, ways to use the EGM,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Microaggression; everyday sexism; scale development; validation